

清末 版本目錄의 辨別과 文獻 史料 考察

- 葉德輝 《書林清話》를 중심으로 -

박준수*

<目 次>

目次

- I. 들어가는 말
- II. 湖南 學術觀과 清末 版本目錄學
- III. 書林清話의 主要 意義
- IV. 版本目錄學의 確立과 《書林清話》 問題點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中國은 역대로 정치적, 학술적 목적 따라 대량의 서적을 출판하고 유통시켰다. 雕版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 書籍은 매우 귀중한 것으로 인식되어 단지 종교와 政教에 관한 것들만 만들었고, 그 중요한 내용도 碑石과 器物에도 새겨 넣었다. 하지만 후대 雕版 원새가 성행가고 다양한 학술 성과들이 출판된다. 또한 이런 대량의 서적 출판은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더욱 학술을 번영시켜 그 유산들은 대대로 雕版하여 書籍으로 전했다.

역대로 中國文化의 유산들은 책을 통해 후대 계속해서 전승되고, 이런 유산에 대한 체계적 분류와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이 매우 절실했다. 특히 清代 고증학이 발전했고, 《四庫全書》의 간행은 古籍의 정리와 목록, 提要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민간에서도 전통적으로 서적의 起源, 流通, 가치를 평가하는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작업이 활성화시켰다. 청대는 또한 인구가 증가하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여 수요와 공급이 원활했고 개인 藏書의 유행으로 각 지역 藏書家들은 체계적인 원칙과 방법에 따라 서적의 목록을 작성하고 평가했다.

전통적 중국 學術研究는 고유한 체계에 따라 서적을 분류하고 평가했다. 현대 중국에서도 모조품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청대나 그 이전 시대에서도 조판 인쇄의 치열한 경쟁과 공명심의 추구로 인해 僞作과 盜用 등이 문제가 있었다. 청대는 小學과 考證學의 발전으로 인해 이런 위조품에 대한 판별과 분석이 발전하여 학술 전반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문물이 극성했다.

清末의 민란과 정치의 혼란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서양문물의 도래는 전통 중국 학술 연구에 있어 좀더 새롭고 체계적인 학문 방법과 성과를 요구한다. 그 당시 학술계는 아직 전통적인 방법의 재정리와 근대적 전환이라는 난제들에 대해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충격과 각성은 당시 학술경향에 대한 심층적 정리와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래서 일련의 학자들은 중국학술의 정리와 해석을 자신의 임무로 인식하고 전통 학술 연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서양의 합리적 연구태도를 받아들이고, 당시 시대적 학술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저작들을 출간한다.

葉德輝(1864~1927)는 이러한 20세기초 급변하던 시대적 조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과 가치관으로 중국문화를 해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발표한다. 그는 특히 경학과 서지학에 대한 연구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 서지학에서 그는 書籍을 版本, 目錄, 校勘의 판단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가치를 평가했다. 그는 《書林清話》를 통해 서적의 기원과 유통, 분석 방법을 정리했고, 중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연구 방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당시 葉德輝와 함께 1892년 會試에 합격한 同科生인 蔡元培(1868-1840)는 전환기에 北京大學의 기초를 다지고, 教育部 장관 등을 거치면서 합리적 근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다. 張元濟(1867-1959) 역시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商務印書館'에 투자하고 編譯 작업에 몰두한다. 이렇게 서양의 근대문화에 영향을 받고 중국을 근대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인물들과 함께, 王先謙, 葉德輝, 王國維, 陳寅恪 등은 전통적 연구방법과 서양의 탐구방법을 도입하여 새롭게 전통적인 중국 학술을 정리한다.

그래서 繆荃孫은 〈書林清話序〉에서 “葉德輝는 서적의 조판 원류를 잘 꿰고

있어, 위로 唐代에 거슬러 올라가고 아래로 현재에 까지, 해외에서도 널리 (史料를) 구했다. 舊刻 정교한 필사본과 장서가의 印章, 어느 판본이 가장 앞서고, 가장 완벽한 지를 가장 가깝고도 분명하게 이해했다. 이 《書林清話》는 葉昌熾의 《語石編》을 모방하고, 俞正燮의 《米鹽簿》를 비교하여, 선현의 서적을 해석하고 후학 (학문의) 分科를 열은 것이 모두 여기에 있다.”¹⁾라고 평가했다.

본 논문은 葉德輝 《書林清話》를 통해서 청말 중국 전통 판본목록학의 정리와 근대적 문헌학의 시작이라는 《書林清話》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湖南의 學術觀과 清末 版本目錄學

葉德輝는 20세기초 전통적 학술방법을堅持한 보수적인 학자이다. 근대시기 중국 학술계는 古今과 中西의 충격으로 인해 새로운 학술적 전환을 모색한다. 하지만 葉德輝가 성장하고 활동했던 湖南省은 학술경향은 아직도 義理之學을 숭상하고 經世致用과 實踐躬行을 중시하는 보수적 경향이 농후했다. 태평천국을 진압한 호남 성 湘軍의 曾國藩과 左宗棠 등은 모두 理學에 충실하며 봉건질서와 충의도덕을 고수했고 전통적인 인격을 숭상했다. 이런 당시 호남의 학술경향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繆荃孫과 王先謙이 있었고, 葉德輝는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

繆荃孫(1844-1919)은 청말 저명한 金石·目錄學者로서, 葉德輝와 함께 서적의 版刻에 대한 鑑別, 收藏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류한다. 그는 文字學, 訓詁學, 音韻學에 정통하면서도 고대 器物을 대량으로 수장하면서 정리하고 金石·書藝에 관한 기초 자료를 출간했다. 그는 10만권이 넘는 장서를 소장하면서 교감하여 《藝風堂藏書記》, 《藝風堂金石文字目》을 정리하고, 판본목록에 대해 후학인 羅振玉, 葉德輝

1) “煥彬於書籍鑄刻源流, 尤能貫串, 上溯李唐, 下迄今茲, 旁求海外. 舊刻精鈔, 藏家名印, 何本最先, 何本最備, 如探諸喉, 如指諸掌. 此《書林清話》一編, 仿君家鞠裳之《語石編》, 比俞理初之《米鹽簿》, 所以紹往哲之書, 開後學之派別, 均在此矣.” 葉德輝《書林清話》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9, p.5.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王先謙(1842-1917)은 長沙 출신으로 國子監祭酒, 江蘇學政을 역임하면서, 《莊子》·《荀子》 등을 集解하고, 《皇清經解續編》 100권을 校刻하고, 또한 岳麓書院과 城南書院을 주관하면서 康有爲 등의 維新運動을 반대하고, 전통적 학술연구와 예교의 회복을 주장했다. 그는 학계에서 經學을 제창하고, 호남의 전통적 학문경향을 진흥하여 漢學을 발전시킨다.

호남의 大藏書家이자 版本目錄家 葉德輝는 同治3년(1864) 長沙의 富商 葉俊蘭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原籍은 江蘇 吳縣으로 조상 대대로 文人 출신이며, 宋代 저명한 학자인 葉夢得의 후손이라고 한다.²⁾ 葉德輝는 17세에 岳麓書院에서 공부하고, 光緒18년(1892년) 進士에 급제한다. 그 후 吏部主事를 除授받았지만 관직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28세에 사직 후 낙향하여 鄉紳이 된다. 그는 호남으로 돌아갔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學人들과 往來하면서 서적을 구입하고 당시 중국의 학술사상경향을 이해한다. 또한 그는 평생 학술연구에 정진하여 經史子集에 많은 저술을 남긴다. 특히 호남 특유의 학술경향을 이어 받아 경전을 교감하고 정리하여 《禮部鄭注改字考》, 《觀古堂藏書目錄》, 《卽園讀書志》, 《書林清話》, 《書林餘話》 《藏書十約》 등의 저술을 남긴다.

葉德輝는 戊戌變法과 中日戰爭, 辛亥革命 등의 혼란한 시기 호남에서 維新運動을 반대하면서 온건한 개혁과 보수적인 學術理論을 주창한다. 그의 學術研究는 전통적 학술경향을 대표하고, 특히 《書林清話》는 版本目錄學에 주목한다. 그는 학술연구 성과의 매개체이자 중국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각종 서적에 대해서 그 기원과 발전, 감별, 분석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 정리한다.

중국의 조판 인쇄는 明末에 극성하고, 청대는 더욱 번영하였고 개인의 장서취미 또한 유행한다. 이런 藏書의 유행은 서적의 목록을 편찬하고, 校勘하여 문헌의 가치를 고증하는 版本目錄學으로 결국 발전하게 된다. 특히 乾隆의 勅令으로 紀昀이 편찬한 《四庫全書總目》으로 인해 版本目錄學은 더욱 발전하고, 또한 전국의 학자들도 자신의 藏書에 대해 得失을 교감하고, 提要를 작성하고, 版本을 정리한다.

2) 葉夢得(1077~1148)은 宋代 詩文과 詞에 뛰어났으며, 20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戶部尚書 등을 역임했다. 저서에는 《石林詩話》·《石林燕語》 등의 작품이 있다.

즉 《四庫全書總目》은 劉向의 《七略》 이후 가장 엄밀한 체계와 상세한 고증으로 書目 편찬의 이정표를 이룩하고 중국학술을 집대성한다.³⁾

官方의 목록을 외에도 개인들도 자신의 장서에 대해 목록을 작성한다. 그 가운데 錢曾(1629~1701)은 《讀書敏求記》에서 자신이 소장한 634종의 宋元刻本을 수록하고, 解題를 달았으며 판본의 異同, 서적 刊刻의 가치와 傳承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외부적인 요건인 版式, 行款, 字體, 종이, 筆墨, 印章 등을 통해 刊刻 시기를 감별했다.

청대 장서가들은 題跋과 筆記를 통해 版本目錄學 성과를 기록했다. 黃丕烈(1763-1825)은 〈士禮居藏書題跋記〉에서 자신이 소장한 서적을 정리하고 각기 題跋을 작성하였고, 그 문장에서 서적의 版式, 裝幀, 傳承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록하고 版本의 가치를 평가했다.

錢泰吉은 《曝書雜記》에서 筆記를 사용하여 장서에 대한 版本目錄學 성과를 기록했다. 그는 撰述 목적에 대해 “여름에 책을 햇볕에 쬐이면서 보고 들을 바를 필기로 덧붙여서, 목록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진수했다.”⁴⁾라고 적고 있다. 이런 筆記를 통해 학자들은 고급 서적의 編纂過程과 學術淵源, 판본의 優劣, 藏書와 筆寫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清末 무전손, 장원제, 楊守敬 등은 廣博한 학술성과를 바탕으로 고적을 정리하고 관련 서적을 저술하여 近代 版本目錄學의 발전을 촉진한다. 葉德輝의 同科生 張元濟는 《四部叢刊》을 통해 근대 최대의 善本叢書를 編輯하였고, 수많은 宋·元·明 舊刻本과 批校本을 수록하고 발굴했다. 이런 版本目錄學의 성과물들은 중국 學術研究에 있어 가장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다.

당시 葉昌熾(1849-1917)도 《藏書紀事詩》를 저술하여 이런 경향에 동참했다. 이 책은 먼저 七言絶句로 藏書家와 藏書의 특징과 가치를 간단히 서술하고, 필기를 덧붙여 註解하는 특색 있는 版本目錄學 저술이다. 하지만 體裁上으로 칠언시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학술성과를 서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지만, 당시 각 藏書家의 특징과 傳承 狀況에 대해 자료를 제공했다.

3) 司馬朝軍 《四庫全書總目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p.450.

4) 錢泰吉 《曝書雜記》,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8, p.2.

葉德輝는 이러한 葉昌熾의 《藏書紀事詩》에 대해 “《藏書紀事詩》는 고금의 장서가에 대해 위로는 은하수, 아래로는 국외, 서점 가격, 淮水의 妓女에 이르기 까지, 그 입으로 전해지고 소문과 일화를 수집하여 詩로 詳註했고, 전해지지 않은 숨겨진 음덕까지 캐내어 선현이 일찍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⁵⁾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그 결점에 대해서도 “刻本の 源流와 校勘者의 사적을 언급하지 않았다.”⁶⁾라고 언급한다. 이렇게 그는 《藏書紀事詩》에 대해 분석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版本目錄書 편찬하려는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葉德輝는 〈書林清話叙〉에서 “諸家の 書目과 題跋을 인용하면서, 반드시 원서를 밝혔다.”라며 전대의 학술 성과를 흡수하고, “刻本の 得失과 筆寫本의 同異點을 검토했다.”⁷⁾라면서 장서와 각서의 연혁을 기록했다. 이렇게 《書林清話》는 역대 문헌사료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역대 학자의 학술 성과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결합하여 정리했다.

Ⅲ. 書林清話의 主要 意義

《書林清話》는 모두 10권 126條目으로 구성되었고, 葉德輝는 문헌 사료에서 版本目錄 주제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어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주로 書籍의 外觀과 沿革을 통해 가치를 평가했다. 특히 서적의 연혁에 대해 簡書에서 抄本, 刻本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면서 풍부한 문헌 사료를 제시했다. 그 가운데 雕版書의 원류와 출판 주제, 시대별 刻本의 특징, 유명인의 筆寫本, 藏書, 書價, 眞僞 등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록했다.

5) “撰《藏書紀事詩》七卷，於古今藏書家，上至天潢，下至方外，坊估、淮妓，搜其遺聞佚事，詳註詩中，發潛德之幽光，爲先賢所未有。” 葉德輝 〈書林清話叙〉《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3.

6) “不及刻書源流與夫校勘家掌故。” 葉德輝 〈書林清話叙〉《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3.

7) “引用諸家目錄提跋，必皆注明原書。而於吾所私藏，非諸家所闕，概不闕入” 葉德輝 〈書林清話叙〉《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3.

구체적으로 《書林清話》 126개 標題에 대해 徐雁은 雕版源流·歷代官刻·歷代私刻·歷代坊刻·斷代研究·古代抄本·古代藏書·古代書業·古代書話·古籍辨偽 등으로 10개 주제로 구분했지만⁸⁾ 너무 산만하다. 그래서 표제를 書籍의 형태적 특징, 版刻의 특징, 各類 刻本の 優劣, 藏書와 관련된 서술 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書林清話》는 비록 1920년에 출간되지만, 〈書林清話叙〉의 “宣統辛亥”라는 기록을 叙文에서 볼 수 있듯이 1911년에 완성되었다

《書林清話》는 중국 최초의 체계적인 版本目錄學 연구서로서, 葉德輝는 書話의 體裁를 통해 서적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적고 있다. 구체적으로 ‘詩話’와 ‘詞話’가 詩詞에 관련 이야기와 주장을 담고 있듯이, ‘書話體’는 소품문의 형식으로 책과 관련된 逸話와 評論을 담고 있다. 古代 藏書 題跋은 筆記와 雜詠을 위주로 사용했고 작자의 정확한 인식과 卓見을 볼 수 있듯이 ‘書話’도 필기를 사용하여 단력적인 형식으로 版本目錄學 지식을 담고 있다.

《書林清話》의 형식은 각권 아래 독립된 표제로 章節로 구분하고, 주제의 내용에 따라 篇幅를 정했다. ‘書籍’에 관련된 장서와 판본의 특징을 담고 있는 書話의 형식과 틀은 후대에도 책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주요한 體裁로 정착된다.

그럼 아래에서 《書林清話》에서 수록하고 있는 몇 가지 版本目錄學의 중요 주제들을 살펴보자.

1) 雕版 印刷의 起源 問題

中國에는 역대로 雕版 印刷의 기원에 대해 3가지 학설이 존재했다. 첫째는 ‘六朝起源說’이고, 둘째는 ‘唐代起源說’, 셋째는 ‘五代馮道說’이다. 이 주장 가운데 ‘六朝起源說’은 일본인 島田翰과 나진옥이 주장한 학설이다. 島田翰은 《雕版淵源考》에서 陸深의 《河汾燕閑錄》에 적혀있는 “廢像遺經悉雕版(廢像을 다시 새기고, 遺經을 다시 조판한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六朝時代부터 조판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葉德輝는 ‘雕版의 語句는 隋 費長房의 《三寶記》에서 말한 “廢像遺經悉

8) 徐雁 〈讀《書林清話》〉 《圖書情報研究》 1986, p.83.

令雕版”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實證的 資料인 文獻史料를 통해 논리적으로 육조기원설을 반박한다.⁹⁾

또한 五代馮道 기원설 대해 葉德輝는 “서적 각본의 시작을 世人은 모두 五代馮道에서 기원했다고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五代馮道說은 宋王明清《揮塵錄》에서 “毋邱儉이 빈천할 때 일찍이 《文選》을 친구들에게 빌리려했지만, 그 사람이 난색을 표하자, 훗날 만약 부귀해지면 마땅히 판각하여 후세 학인들에게 남길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다. 후에 벼슬이 蜀의 재상에 이르자, 바로 그 말을 이행하여 그것을 판각했다. 서적을 인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¹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葉德輝는 ‘毋邱儉’은 ‘毋昭裔’의 誤記이고, 宋代는 五代와 가깝고, 실제 판각 서적이 남아있어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찬성했다고 적고 있다.¹¹⁾

하지만 葉德輝는 조판인쇄의 기원을 唐代라고 판단했다. 그는 殿本《舊五代史》卷43 《唐書·明宗紀》注文중의 《家訓序》에서 “僖宗 中和 3년(883년) 癸卯 여름, 천자께서 3년 동안 蜀에 계실 때, 나는 中書舍人이었다. 旬假에 외성의 동남쪽에서 책을 살펴봤다. 그 책은 주로 陰陽五行, 占卜風水, 占星術에 관한 종류가 많고, 字體 같은 小學流도 있었다. 모두 조판하여 종이에 인쇄했는데, 얼룩져서 알아 볼 수 없었다.”¹²⁾라는 문장을 인용하여 당대에 이미 판각이 유행했고, 아마도 회종 이전에 조판인쇄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역대로 雕版 인쇄의 기원에 관해 수많은 異說이 있었다. 하지만 실증적 문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확한 시작 연도를 추측만 할 뿐이었다. 葉德輝 또한 實物이 아닌 사료에서 고증하여 당대기원설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近世 1926년 투루판에서 출토된 구마라집의 《妙法蓮華經》 殘卷과 1966년 한국 경주 불국사 다보탑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목판본으로 葉德輝의 추론이

9) 葉德輝 《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28.

10) “毋邱儉貧賤時嘗借《文選》於交遊間，其人難色，發憤異日若貴，當版以鏤之遺學者。後仕蜀爲宰相，遂踐其言刊之。印行書籍，創見於此。”王明清，《揮塵錄》上海：上海書店，2001，pp.240-241.

11) 葉德輝 《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28.

12) “中和三年癸卯夏，鑾輿在蜀之三年也。余爲中書舍人，旬休，閱書于重城之東南，其書多陰陽雜記，占夢相宅，九宮五緯之流，又有字書小學，率雕版印紙，浸染不可曉。”葉德輝 《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27.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최초의 목판 인쇄물은 모두 武則天의 新制字 (684-707)를 사용하여, 唐代에 이미 인쇄술이 유행한 것을 입증한다. 이와 같이 실제 文物은 접할 수 없었지만 문헌사료 속에서 적절하게 논증의 근거를 찾아 사실에 가깝게 고증한 점은 葉德輝의 성과이다.

2) 書籍 板權의 인식 문제

葉德輝는 〈翻板有例禁始於宋人〉 조목에서 宋代에 이미 翻刻本을 금지하는 牌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것은 현대적 관점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서적의 板權에 대한 관점이 존재했고, 이것은 서적의 知的 내용과 板刻의 예술성을 인정한 것이다. 葉德輝가 소장한 ‘五松閣仿宋程舍人宅刻本 王僞《東都事略》’의 목록 뒤의 牌記에는 “眉山程舍人宅刊行, 已申上司, 不許覆板(眉山 程舍人 간행, 이미 관청에 신고하였으니 翻刻을 금함)”¹³⁾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현대 서적의 판권을 ‘不得翻印’라고 적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판권 의식은 작자의 편집 노고와 판각과정에서 소비한 경제적, 지식적 노고를 인정한 것이다.

祝大傅 발행인 吳吉에 대한 고발장 : 우리 가문이 간행한 《方輿勝覽》와 《四六寶苑》, 《事文類聚》 몇 종류의 서적은 모두 우리 가문의 貢士가 개인적으로 몇 년의 노고를 들여 편집한 것이다. 지금 조판하여 출판하니 비용이 막대하다. 서점가의 영리를 취하는 무리가 바로 위 판각을 제목 바꾸거나 절록하여 《輿地紀勝》의 책명으로 翻刻할까 심히 걱정된다. 번각하여 빼앗는 것은 우리 가문의 노고를 헛되이 하고 자금을 낭비하게 하는 정말 엄중한 행위이다. 판각서적을 조사하고 관청에 신고하여 법령이 지켜지고 翻刻의 재앙이 사라지기를 바란다.¹⁴⁾

13) 葉德輝 《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43.

14) “據祝大傅宅干人吳吉狀：本宅見刊《方輿勝覽》及《四六寶苑》、《事文類聚》凡數書，并系本宅貢士私自編輯，積歲辛勤。今來雕板，所費浩瀚。竊恐書市嗜利之徒輒將上件書版翻開，或改換名目，或以節略《輿地紀勝》等書爲名，翻開攪奪，致本宅徒勞心力，枉費錢本，委實切害。照得雕書，合經使台申明，乞行約束，庶絕翻版之患。” 葉德輝 《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p.43-44.

위 예문은 당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當時 板刻 출판은 성행하였고 영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타인의 서적을 번각하여 저자와 출판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또한 예문에서는 盜版이 저자의 정신적 노고를 훔치고 멋대로 절록하여 본래의 의미를 해침으로 고발장을 통해 翻刻의 금지와 관권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더군다나 葉德輝는 관권을 인식하고 서적의 단순한 지적 노동과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翻版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번각은 서적 자체의 가치와 학술연구 성과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인식했다.

3) 宋元 善本에 대한 평가

葉德輝는 《書林清話》에서 宋元 刻書의 양상과 그 연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송대에 중앙·지방의 관청뿐만 아니라 서원에서도 적지 않은 서적을 판각했다. 서원은 생도의 학습 수요와 장서의 확충을 위해 스스로 서적을 刻印했다. 〈宋司庫州軍郡府縣書院刻書〉에서 개별 書目에 기재된 8개 서원에서 刻印한 12종의 서적을 수집하여 匯錄하고 宋代 書院 出版 活動의 사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葉德輝는 또한 板刻主體에 따라 刻本을 官刻本, 坊刻本, 家刻本으로 구분했다. 역대로 版本目錄 學者들은 官刻本과 家刻本을 중시하고 坊刻本을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葉德輝는 126개의 조목 중 29개 조목에서 書坊刻書를 논술했다. 일반적으로 書坊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版刻했고, 그 서적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校勘이 정밀하지 못하고 인쇄 품질 또한 저열하다고 여겨졌다.

宋代 周輝은 《清波雜志》에서 麻沙本에 대해 “인쇄된 문자의 오탈자는 일상적이었다. 대개 書籍 校勘은 먼저 쓸듯하는 것인데, 먼지는 쓸자마자 또 생겼다…… 麻沙本의 오류는 후학을 誤導하는 것이 많았다.”¹⁵⁾라고 福建 麻沙本을 혹평하고 있다. 《四庫全書總目》에서도 누차 坊刻本의 저열함을 언급하여 “대저 시골의 비루한 선비에서 나왔고, 오래되고 진부한 것을 베껴서 취하기 부족한 것이 많았다.”¹⁶⁾

15) “印刷文字，訛舛爲常。蓋校書如掃塵，旋掃旋生。……若麻沙本之差舛，誤後學多矣。”周輝 《清波雜志校注》北京：中華書局，1997，pp.334-335.

라고 麻沙本을 평가했다.

葉德輝도 물론 坊刻本의 僞作, 校勘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또한 坊刻 출판이 서적유통과 문화보급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都門書肆之今夕〉과 〈吳門書坊之盛衰〉 조목에서 宋에서 清代의 書坊 刻書의 상황을 상세한 통계로 설명했다. 더욱이 역대로 심하게 지적받은 建陽書坊에 대해서도 “建陽書坊은 천하의 부를 주무르니, 역사가와 호사가로 하여금 마땅히 《貨殖傳》의 예와 같이 《書林傳》을 덧붙여야 한다.”¹⁷⁾라고 하면서 建陽書坊의 출판업과 문화전파에 대한 공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는 坊刻이 성행한 원인을 물론 영리추구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위해 그들은 새롭고 재빠른 刻書와 참신한 내용으로 독자의 구입을 유도했고, 신속하게 사회적 수요의 동향에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즉 坊刻本은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독서 수요를 반영하고, 서적 刻印과 유통에서 사회 각 계층에 영향을 주었고, 傳道教化를 추구하고 유가경전을 주로 각인했던 官刻本, 학술성파에 주의하여 名人·名著를 刻印하고 校勘에 집중한 家刻本과 함께 지식유통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했다.

4) 主要 藏書家の 事跡 整理

葉德輝는 《書林清話》에서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역대 유명한 몇몇 藏書家의 사적과 장서의 연혁을 정리했다. 특히 명대 저명한 藏書家이자 刻書家인 毛晉과 汲古閣을 6개 條目에 걸쳐 그 일생과 성취를 고증하고 평가했다.

명말의 장서가중 常熟의 毛晉은 汲古閣으로 제일 유명하다. 당시 《13經》과 《17史》, 《津逮秘書》·《唐宋文人別集》을 두루 刻印했고, 道藏·詞曲에 이르기까지 수집하여 刻印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顧湘 《汲古閣板本考》을 살펴 보면 진귀한 서적과 보물이 전대에는 못본 것이다. 곧 그가 각인한 《說文解字》는 元明 兩代 未刻本으로 하루 아침에 세상에서 출현하였으니, 그 小學에 대한 공로가 더욱 적지 않다.¹⁸⁾

16) “大抵出自鄉塾陋儒，剽襲陳因，多無足取。”《子部·類書一》《四庫全書總目》北京：中華書局，1992.

17) 葉德輝 《明人私刻坊刻書》《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157.

또한 葉德輝는 毛晉의 藏書의 淵源과 行방을 정리하고, 毛本 '17史'의 기원과 毛刻의 특징을 논술했다. 저명 장서가를 논술하면서 찬양만 하지 않고, 그의 결집 또한 제시했다. 즉 毛刻이 宋元 舊刻에 의지하지 않고 정교한 校勘도 부족하다는 段玉裁 등의 毛刻에 대한 비평을 제공하면서 그 功過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내렸다.

5) 書籍 關聯 史料 정리

지식 전달 매체로서의 서적 定價과 刻工價의 고찰은 出版史의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경제의 발전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淳熙三年 舒州公使庫刻 曾種의 《大易粹言》 葉文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근래 《大易粹言》 1부를 갖추었다. 20冊을 계산하니 사용된 종지와 제작비는 다음과 같다. 종지는 모두 1300張을 사용했고, 장정으로 饒靑紙 30장, 靑白紙 30장을 사용했다. 갈색 묵과 아교, 인쇄공의 식비 등으로 모두 1貫 500文을 사용했다. 판각 사용비는 1貫 200文이면 충분했다. 庫本에서 인쇄한 이전의 판매가는 매 部에 8貫에 달했다.¹⁹⁾

葉文에는 이 책의 정확한 총원가는 적혀있지 않다. 하지만 李致忠의 《宋版書叙錄》에 근거하여 紹興年間 刻工 가격을 다음과 같이 추산할 수 있다. 《大易粹言》 각 部는 1300장의 종지를 사용하여 150文, 饒靑紙 30장과 靑白紙 30장은 440文, 잉크, 아교, 수공비 등이 1貫 500文, 판각 임대료가 1貫 200文으로, 총 원가는 4貫을 넘지 않지만 정가는 8貫에 달했다.²⁰⁾

18) “明季藏書家，以常熟之毛晉汲古閣爲最著。當時遍刻《十三經》、《十七史》、《津逮秘書》、唐宋元人別集，以至道藏、詞曲，無不搜刻傳之。觀顧湘《汲古閣板本考》，秘笈琳琅，誠前代所未有矣。卽其刻《說文解字》一書，使元明兩朝未刻之本，一旦再出人間，其爲功於小學，尤非淺鮮。”葉德輝《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190.

19) “今具《大易粹言》壹部，計貳十冊，合用紙張印造工墨錢下項，紙副耗共壹仟參百張，裝背饒靑紙參拾張，背靑白紙參拾張，棕墨糊藥印背匠工食等錢共壹貫伍佰文，賃板錢一貫貳百文足。庫本印造見成出賣，每部價錢捌貫文足，右具如前。”葉德輝《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152.

20) 李致忠《宋版書叙錄》，北京：書目文獻出版社，1994，p.40.

이런 葉德輝의 사료 정리를 통해 송대 지방 행정기관이 刻書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書林清話》는 서적 발행 혹은 필사의 원가를 정리하여 남겨두었고, 이것은 당시 사회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훌륭한 사료가 된다. 學者인 동시에 商人이었던 葉德輝는 학술적 관점을 갖고서 또한 사업적 시각으로 서적에 대한 다른 관점의 기록을 남겨두었고, 이것은 복잡한 사료 가운데 고대 서적 가격과 관련된 葉文 資料에 남아 있다.

IV. 版本目錄學의 確立과 《書林清話》 問題點

1) 宋元 善本에 대한 所藏 기준 확립

청대 黃丕烈은 宋版書에 미혹되어 호를 ‘佞宋主人’으로 짓고, ‘佞宋’ 경향을 선도했다. 葉德輝는 각종 문헌사료에 근거하여 宋版書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하고, 당시 유행했던 ‘佞宋’ 풍조에 대해 엄밀한 평가를 내린다.

먼저 葉德輝는 宋版이 校勘의 바탕이 되는 역할을 긍정했다. 예를 들어 北宋 蜀刻 諸經은 唐蜀 《石經》을 근거로 하여 매우 귀중하다. 하지만 또한 宋本이 “宋刻書의 字句가 모두 古本藏書 貴宋本과 같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안다. 그러나 宋本이라도 모두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宋代 이후 儒家는 단지 義理만 窮究하고, 字句는 교감하지 않았다. 그 책은 宋版으로 된 정교한 雕版이지만 賞玩의 대상될 수 있을뿐 校讎의 용도로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²¹⁾라고 평가한다. 여기에서 그는 엄밀한 학술 평가의 입장에서 宋版書가 宋代 유학의 義理 중시로 인해 字句에 대한 校讎가 부족한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논술했다. 清代 藏書家의

21) “宋刻書字句不盡同古本藏書貴宋本，人人知之矣。然宋本亦有不盡可據者……宋以來儒者但求義理，於字句多不校勘。其書即屬宋版精雕，只可爲賞玩之資，不足供校讎之用。” 葉德輝 《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164.

‘佞宋’ 풍조는 陸心源이 藏書樓를 ‘皕宋樓’라고命名하고 宋本書 200권을 수장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만연했다. 하지만 葉德輝는 陸心源이 愛妾과 하녀를 宋槧 袁宏《後漢紀》와 바꿨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반감을 갖는다. 그래서 그는 “대저 愛妾과 하녀로 책을 바꿨다는 일은 風流가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풍경의 아름다운 흥취를 깬 것에 가깝다. 이와 같이 바로 ‘佞宋’의 기벽이 膏肓에 들어가면 人情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아마도 논리를 따질 수 없는 것이 된 듯하다.”²²⁾라고 비판하고 있다. 葉德輝는 宋版에 대해 “宋版 모두 옳은 것은 아니고, 時板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元本이 송대에 바탕을 두었고, 또한 宋刻 善本은 많이 散佚되었지만, 元本은 많이 전해진다고 하여 元本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래서 《書林清話》 卷7에서 〈元刻書之勝於宋本〉 조목을 통해 經史子集 四部에서 8개의 예를 들어가며 元刻本이 宋刻本보다 뛰어난 점을 밝히고 있다.²³⁾

청대에는 黃丕烈과 같이 宋版書에 미혹된 文人學士들이 적지 않았고, ‘佞宋’의 풍조는 청대 版本目錄學의 논리적 이론과 실증에 중요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반해 葉德輝는 宋版書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收藏 與否를 결정했다. 즉 그의 《藏書十約》에서 “먼저 經部, 다음으로 史部, 叢書를 수장한다. 經部에서도 13經, 史部에서는 24史, 叢書는 종류가 많고 校勘과 判각이 정교한 것을 우선 소장한다.”²⁴⁾라며 所藏 가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정교하게 교감되고 判각된 叢書가 子部와 集部 서적보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책을 구입할 때는 유한한 경비에서 得失과 輕重, 緩急을 따져서 급하고 유용한 서적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가 서적의 학술 가치를 평가했을 뿐 아니라, 서적의 효용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清代 宋元刻本은 ‘三百金購宋’라고 할 정도로 고가였지만, 어떤 宋元本은 대부분 교감이 정밀하지 못한 坊刻本이고 殘本도 많았다. 이에 반해 그는 ‘時本’이 가격도 저렴하고 교감과 判각이 정밀하여 수장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葉德輝 역시 宋本 《南岳總勝集》·《玉臺新詠》을 소장했다.

22) “夫以愛妾美婢換書，事似風雅，實則近於煞風景。此則佞宋之癖，入於膏肓，其爲不情之舉，殆有不可理論者矣。” 葉德輝 《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280.

23) 葉德輝 《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177.

24) 葉德輝 《書林清話》《藏書十約》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333.

2) 版本, 目錄, 校讎學에 대한 學科的 分類

葉德輝는 〈板本之名稱〉 조목에서 目錄學·版本學·校讎學을 청대 학술의 토대라고 평가했다. 청대 학술에 대한 이런 평가는 文獻學을 너무 높이 평가하여 균형을 잃은 것이지만, 그는 版本, 目錄, 校讎學이 명확히 독립된 學問이고 校勘學이 版本, 目錄, 校讎學을 포괄한다고 주장한다.²⁵⁾

청대 학자의 目錄學과 校讎學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르다. 章學誠(1738-1801)은 目錄學을 독립된 학문으로 간주하지 않고 校讎學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즉 그는 劉向과 鄭樵 이래 중국 校讎學은 學術 源流를 관별하는 데에 치중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校讎通義》에서 “校讎의 뜻은 대개 유향 부자에서 전래한 것으로, 部類와 順序를 나누고, 학술을 변별하고, 원류를 참조로 하는 것이다. 학술이 세밀하지 않고 여러 책의 득실에 밝지 않아 이것과 함께 하기 부족하다.”²⁶⁾라고 논술한다. 즉 그는 校讎學을 전문화된 學問 分科로 간주했지만 目錄學을 홀시했다. 하지만 개인 藏書家가 많아지자 書目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宋代부터 印刷 出版의 발전으로 인해 晁公武《郡齋讀書志》, 尤袤《遂初堂書目》, 陳振孫《直齋書錄解題》 등의 目錄學 저술들이 출현하고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분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清代 王鳴盛(1722-1797)은 “무릇 讀書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目錄學으로, 目錄이 분명해야 독서를 할 수 있고, 불명확하면 결국 亂讀하게 된다.”²⁷⁾라면서 校讎學이 目錄學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葉德輝는 이런 版本目錄學 주장속에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역대의 目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목록을 編述하면 학술의 원류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目錄學과 版本學을 독립된 學問 分科로 구분하였다. 그는 版本學에 대해 ‘版은 雕版 印刷本을 말하고, ‘本’은 雕版 이전의

25) 葉德輝 《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33.

26) “校讎之義，蓋自劉向父子，部次條別，將以辨章學術，考鏡源流，非深明於道術精微，群言得失之故者，不足與此。”章學誠《校讎通義通釋》上海：上海古籍，1987年，p.1.

27) 王鳴盛《十七史商榷》上海：上海書店，2005，p.45.

筆寫本을 말하는 것으로 定義하여 구분하고 目錄學은 개인 藏書가 활발해져 相異한 版本이 생기면서 판본학이 시작되었다고 논술했다. 28)

3) 《書林清話》의 缺點

《書林清話》는 版本目錄學 분야를 개척한 著作으로 관련 연구에서 꼭 필요하지만 적지 않은 오류도 존재한다. 後代 李洙의 《書林清話校補》와 日本人 長澤規矩也의 《書林清話糾繆并補遺》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았다. 그 주요 사항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書目 引用의 誤謬

《書林清話》는 諸家の 목록에서 文獻 史料를 많이 인용했는데, 一部 인용된 書名, 題跋, 牌記 등의 2차 자료를 고증하지 않아서 쉽게 오류를 범했다.

(2) 완벽하지 못한 考證의 誤謬

清代 學術은 비록 고증학이 극성하고 많은 성과를 제공했으며, 葉德輝도 藏書家 南宋 臨安 陳氏父子와 明代 毛晉의 行적과 활동에 대해 상세히 고증했지만 역시 고증이 완벽하지 못한 例가 있다.

(3) 文獻 史料 운용의 誤謬

葉德輝는 사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공력이 대단했지만, 역시 實證資料의 부족으로 인해 主觀的 推論에 의거하여 엄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을 대담하게 總結한 것이 있으므로 잘못된 결론도 있다.²⁹⁾

28) 葉德輝 《書林清話》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p.12.

29) 《書林清話》의 오류에 관한 연구는 任莉莉의 《書林清話箋證》(華東師大博士論文，2009年)을 참고.

V. 나오는 말

역대로 중국 전통 문헌학은 학문을 분류하여, 원류를 참조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역할에 얽매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많은 版本目錄學 사료의 운용에만 주의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葉德輝는 《書林清話》을 통해 이전의 전통적 학술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專門的인 版本目錄學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즉 葉德輝는 풍부한 藏書와 書目을 바탕으로 古代 目錄과 文獻史料에서 書籍과 刻書, 藏書家의 價値와 事跡을 분석했다. 이것을 통해 전통 版本目錄學의 가치와 장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의 고유한 학술체계를 완성했다. 즉 葉德輝는 이전에 단순히 治學의 보조수단이었던 文獻學을 독립적으로 서적을 감별하고 관련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學問分科로 확립한다. 단순히 연구와 독서의 시작단계에서 서적에 대한 외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적에 대한 정확한 간행연도와 가치평가를 통해 서적 내용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정밀한 학술연구의 한 방향으로 版本目錄의 효용성을 《書林清話》에서 제시했다. 물론 그는 실증자료가 부족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오류도 범했지만, 박학다식한 전통적 학술방법으로 문헌사료를 발굴하고 고증하여 중국적 특성의 문헌학 연구의 중요한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參考文獻〉

- 葉德輝, 《書林清話》 北京: 中華書局, 1999.
 葉德輝 撰, 紫石 點校 《書林清話》外 二種,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9.
 葉昌熾, 《藏書紀事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余慶蓉 王晉卿 著 남태우 송일기 共譯 《中國目錄學思想史》, 대구: 태일사, 2009.
 孫欽善, 《中國古文獻學史》, 北京: 中華書局, 1994.
 傅璇琮, 謝灼華 주편 《中國藏書通史》 寧波: 寧波出版社, 2001.
 張秀民, 《中國印刷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9.
 王欣夫, 《文獻學講義》, 台北: 臺灣常務印書館, 1992.
 井上進, 《中國出版文化史: 書物世界と知の風景》,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2.

- 황지영, 《明末淸初 科擧受驗用 서적의 상업출판과 전파》 연세대 사학과박사논문, 2007.
- 任莉莉, 《書林淸話箋証》,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2009.
- 江瑞芹, 《書林淸話版本學思想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論文, 2009.
- 朱新民, 《葉德輝及其歷史文獻學研究》 湖南師範大學研究 碩士論文, 2005.
- 劉孝平, 《葉德輝文獻學研究》 武漢大學 碩士論文, 2005.
- 張晶萍, 《葉德輝思想與學術研究》 湖南大學 博士論文, 2008.
- 張晶萍, 〈葉德輝研究之我見〉 《船山學刊》 2004 第3期
- 袁慶述, 〈葉德輝和他的《書林淸話》〉 《中國文學研究》, 2003 第1期.
- 沈俊平, 〈葉德輝觀古堂藏書述略〉 《中國典籍與文化》, 2000 第3期.
- 馮浩菲, 〈試論中國文獻學學科體系的改革〉 《文史哲》, 2002 第1期.
- 來新夏, 〈《書目答問匯補》敘〉 《中國典籍與文化》, 2008 第2期.
- 沈俊平, 〈葉德輝觀《四部叢刊》〉 《古籍整理研究學刊》, 2002 第2期.
- 彭清深, 〈葉德輝及其所編三部書〉 《社會科學戰線》, 1995 第3期.
- 張承宗, 〈《書林淸話》與書史研究〉 《史學史研究》 1,984 第4期.
- 袁逸, 〈評《書林淸話》〉 《圖書館雜誌》 1,983 第4期.

〈中文提要〉

清末葉德輝的《書林淸話》是在中國版本目錄學上第一部系統的, 集中探討有關書籍外型與內容價值的專著. 其內容涉及了文獻學的各個方面, 而且徵引了大量的文獻史料, 并且對這些文獻史料進行了考辨. 因此《書林淸話》是研究中國古代書籍的開山之作, 還記載了一些著名刻書家、藏書家的逸聞趣事, 又表述有關書賈、寫工、裝訂工及鈔書女子等等的細節問題. 就給後學研究古代校書、刻書、抄書、賣書、藏書及書坊的情況提供了豐富的資料和線索. 葉德輝在引用史料時, 多附加自己的心得與評語, 又糾正補缺, 有助於古籍研究者. 所以本論文重視對明清以來《書林淸話》的學術意義, 還評述其書的缺點與疏失, 就叫現在文獻學研究具有重要的啓示意義。

關鍵詞: 葉德輝, 書林淸話, 文獻史料, 版本目錄, 雕版印刷, 藏書家, 佞宋

이 논문은 2010년 5월 10일에 접수되어 2010년 6월 1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6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